

광주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민·관 공동대응 나선다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화 종합대책 추진 경찰청·노동청 등 정책지원단 회의 시민참여 다양화 제안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등 '3대 사망사고 줄이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총무실에서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정책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대책 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3대 안전 취약 분야의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구성한 상태다. 운동본부는 정책방향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단'과 시민안전 의식개선 및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실천단' 등 2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나, 3대 사망사고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도 광주경찰청, 고용노동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시민실천단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관공서 중심의 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실제 회의 참석자들은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시민들이 일상 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단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제안 등도 나왔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이나 전통키보드 민원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실천단의 참여 방식을 다양화해야하며, 96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시민 밀착 홍보 강화, 집중 캠페인 전개,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또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T-GIS) 구축, 24시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고광완 광주 행정부시장이 지난5일 오후 시청 총무실에서 열린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 정책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있는 추진을 당부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광완 광주 행정부시장은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로부터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역량 결집과 적극적인 노력

이 절실하다"며 "3대 분야뿐 아니라 기반시설, 생활안전, 보건, 환경 등 광주시 전반을 꼼꼼히 살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천변 걸으며 현장행정 강기정 시장 보행환경 점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천변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6일 시 공직자들과 왕복 15km를 걸으며 광주천변 정비 상황 및 운영을 다시 시작한 공영자전거 '타랑개'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봄철을 맞아 광주천변으로 산책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쾌적한 보행·자전거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천변 주변에서 광천동 재개발, 옛 방직공장터 개발,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광천권역과 구도심을 연계하는 보행 환경 개선 및 원활한 교통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광주천을 중심으로 복합소상공명은 물론 대규모 주택단지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행환경 조성하고 교통대책 마련이 광주시의 최대 과제"라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광주천을 이용해 자전거나 도보로 문화·소풍활동은 물론 힐링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천은 광주시 동구 학동 원지교에서 영산강과 합류하는 서구 유덕동에 이르는 12.2km이며, 천변 좌로에는 산책로가, 천변 우로에는 자전거도로가 분리 설치돼 있다. 2018년 이후 광주천과 인접한 북구 누문동·유동·임동 등지에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등, 현재 광천동 재개발, 옛 방직공장터 개발,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뷰티제품 전시·판매 전일빌딩 245에 '광주뷰티존' 문 열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245 2층 남도관광센터에 '광주뷰티존'을 마련하고 지난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주뷰티존에는 지역 뷰티기업 회원으로 구성된 (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에서 선정한 비건 인증제품, 미백·주름개선·탄력 등 기능성 제품, 탈모 증상 완화제품, 발 관리 제품 등 총 9종의 지역 대표 뷰티제품이 입점해 전시·판매된다.

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는 ▲제품의 사업성(해당 제품 국내외 시장 현황, 제품 기술력, 우수성 등) ▲기업역량(해외 진출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여, 해외 바이어 확보, 수출 실적) ▲제품의 적정성(소비자 대상 전시 및 판매) ▲기업준비성(제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여부 등) 등을 종합 평가해 입점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특허원료, 특허 기술, 임상실험결과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로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광주뷰티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다양한 뷰티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제품 판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정보무늬(QR코드) 생성 등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평균 수명 연장,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K-뷰티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뷰티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203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90%로 높인다

사업비 3조9764억원 투입 중기 하수도사업계획 수립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도내 하수도 보급률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 등에 모두 3조9764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7일 "전국 평균(95.1%)을 크게 밑돌고 있는 전라남도 하수도 보급률(83.9%)을 90%까지 올리기 위해 '2026-2030년 중기 하수도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수도 분야 5개 주요사업인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먼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도시 침수 대응 등에 나

설 예정이다.

이 기간 연도별로 시·군이 제출한 하수도사업계획 중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재이용관리계획, 타당성 및 예타 조사완료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와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 신청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중기 하수도사업계획의 우선 지원 대상을 정했다.

또 도시 침수 대응, 악취 저감, 반복적(연 3회 이상) 수질기준 초과뿐 아니라 노후화 등 성능·안전 저하 시설 개선,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일부 지자체의 사업을 포함했다. 특히 자체 재정을 활용한 선투자(부지 확보·주민주입 등)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 추진의지를 고려해 반영했다.

전남도는 중기 하수도사업계획을 통해 시·군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현안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면단위와 도시 침수 대응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3년 2265억원, 2024년 3473억원의 하수도 분야 국고 확보 성과를 거뒀다.

오는 2025년에도 총 사업비 1조683억 원 규모의 하수도 현안사업 국고(6461억원)를 환경부에 신청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에 한발 앞선 단계별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통해 하수도 분야 국고 예산 안정적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년들의 5·18 이야기 들어요...광주시 강연대회

5월 25일 5·18교육관서 28일까지 접수...전문가 코칭

광주시는 "오는 5월 25일 5·18교육관에서 5·18에 대한 청년의 자유로운 생각과 이야기를 듣기 위한 '5·18 청년강연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생각하는 5·18과 그들의 삶에 녹아있는 5월 정신에

대해 고찰하고, 다음 세대가 5·18을 어떻게 계승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대회는 19-39세 대한민국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구글폼링크(<https://forms.gle/rP9XEfoUBN14Gyd5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글 썼는지, 강연대회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을 평가한 뒤 최종 강연 대상자(5명)의 3배수인 15명을 선발해 5월 6일 강연을 시연할 예정이다.

강연 시연을 통해 선발된 5명은 2주간 전문가의 강연 코칭을 받아 역량을 강화하고, 최종 본선(5월 25일)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본선에서는 심사위원 심사와 청중 평가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6개소 신규 지정 기업당 2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6개소를 신규 지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이번 신규 지정은 1월부터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바라는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예비마을기업은 총 125개소로 늘었다. 신규로 지정된 기업은 마을공동체, 지역 특화 소득 창출, 고령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2000만원의 보조금과 판로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받는다. 다만 법인이 아닌 단체는 지원요청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진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의 기반 마련과 판로 및 시제품 개발 등 다방면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춧돌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